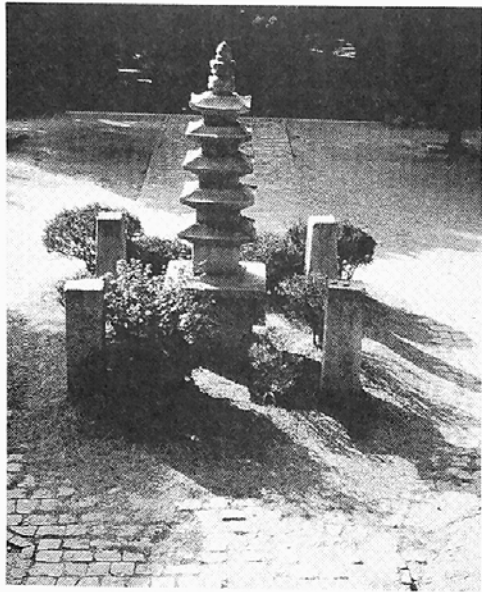


“렌즈 7개에 담은 불교美學”

삼성반도체 사진동호회전 ‘색즉시공’ 불상·벽화등 7인7색 주제별 작업



각기 다른 일곱색깔이 모여 ‘색즉시공(色卽是空)’의 무지개를 띄운다. 수원 삼성반도체의 사진동호회 회원 7명이 각기 불교를 소재로 한 사진작업을 하고 1인당 5작품씩 총 35점으로 불교사진전을 연다. 20일부터 24일까지 동송동 예총회관 1층 전시관에서 열리는 이번 사진전의 제목은 ‘색즉시공(色卽是空)’. 열정과 패기로 견져올린 사진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불교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고 싶다는 이들 7명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들 7명은 장영진(전기그룹) 김미영(공정2PJT.) 김종표(DTI그룹) 김지광(포토마스크그룹) 임대건(메모리QA그룹) 임체홍(전기그룹) 최현숙(라인관리그룹).

삼성반도체의 수많은 직장인들중 사진이라는 취미활동을 통해 만났고 이번 불교사진작업을 하며 불교와 끈끈한 인연을 맺었다. 사진동호회에서 사진작가 김영희씨의 지도를 받아온 이들은 대부

분이 사진했수만도 10여년에 이를 정도로 베테랑들이다. 매년 사진전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이들은 지난해 말 우리 전통문화의 보고인 불교를 소재로 해 작품전을 열어 보자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모여져 작품 준비에 들어갔다. 이들은 각자 또는 함께 용주사 각원사 등 전국의 사찰을 다니며 불상과 탑, 벽화 등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렇게 하다보니 어느새 각자 관심사는 주제가 정해지기 시작했다. 장영진씨는 아이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사천왕상 신중상등 제불보살상들을,

김미영씨 또한 불상을, 김종표씨는 사찰 벽화, 임대건씨는 목어등 사물과 대웅전 등을, 김지광씨는 각각각색의 탑, 최현숙씨는 판상성등 등 벽화, 임체홍씨는 부처님오신날 연등행사나 탑돌이등 불교행사를 주로 렌즈에 담았다. 이들은 대부분이 무종교였으나 절에 다니며 사진을 찍다보니 저절로 부처님나라의 도반이 됐다. 처음에는 무심코 불상에 카메라를 들이대다 스님에게 꾸중도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절에 가면 부처님께 먼저 삼배를 올리고 스님을 만나면 합장을 할 정도로 불심을 향한 끊임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 수인(手印)등 생소한 불교용어를 알기위해 불교교리책도 자주 들여본다.

“전에는 불교를 잘 몰랐는데 사진을 찍다보니 전통문화인 불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도 물론 커지고요. 향내음이 어느새 몸에 배듯 절에 다니다 보면 마음의 문이 열리겠지요.” 이제는 자랑스럽게 불자라고 얘기한다는 장영진씨의 말이다.

이경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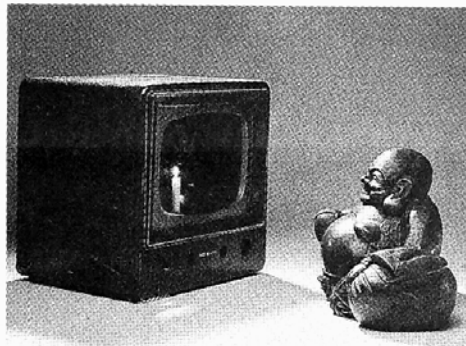
“眞如一色의 경지 감상하세요”

성각스님 선사화전 19~24일 부산국제신문 문화센터

가을 초입에 독특한 화풍으로 진여일색(眞如一色)의 경지를 그려낸 성각스님(남해 망운암 주지)의 선사화전이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부터 24일까지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 4층 전시실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망운진여일색’ ‘심해산미수(心海山美水)’를 비롯한 선사화 60여점이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전시되는 ‘망운진여일색’과 ‘심해산미수’는 전지 한 장에 그려진 대작으로 동양화의 본고장인 중국에서 열린 97천지국제미술대전과 장춘미술대전에서 각각 대상을 차지한 작품이라 더욱 이채롭다. 미국 프랑스 등 7개국에서 출품된 6

만8천여점의 작품중에서 수상의 영광을 차지, 이를 계기로 성각스님은 중국서화학사대학 객과교수로 위촉되었고, 두 작품은 길림성박물관과 연변박물관에 소장될 예정이다. “산과 바람 물이 한데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것을 자유로운 구도와 기법으로 표현해 해탈에 들 수 있는 마음자리를 찾아 나가는 것”이라고 선화를 정의하는 성각스님은 “선화를 통한 한중 문화교류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회 수익금은 소년소녀 가장돕기에 전액 쓰여지게 된다.

부산=천미희 기자



◇‘독일 비디오 조각전’에 선보일 백남준씨의 비디오 설치작품 ‘미소짓는 부처’.

3곳서 불교소재 비디오아트展

백남준·박현기·정영창씨 전시 잇달아

백남준 박현기 정영창 씨들의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을 볼 수 있는 비디오 아트전시회가 초가을을 장식하고 있다. 10월 7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02-580-1234)에서 열리는 독일비디오조각전에는 ‘미소짓는 부처’ ‘부처 신 악마 기억’ 등 백남준씨의 작품을 비롯 독일에서

활동하는 17명의 작가 총 60여점의 조각 비디오 작품이 소개된다. 영상과 조각의 조화로운 만남을 통해 21세기 현대미술의 방향을 가늠해 주는 비디오아트의 첨단흐름을 조명할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이다. 경주 선재미술관(0561-745-7075)에서는 박현기씨가 비디오 이스트를 레이선작품 ‘만다라’와 ‘물’ 시리즈를 오는 30일까지 열고 있다. 박씨는 만다라와 물 시리즈에서 고대 인도 만다라에서 차용한 감렬한 색채의 이미지를 통해 정적인 만다라를 비디오로 빠르게 투사시켜 혼돈과 명상, 내면세계와 주위세계와의 대립과 융합을 느끼게 한다. 한편 재독작가 정영창씨는 오는 24일까지 동송동 한국문화예술진흥원(02-760-4500)에서 불교적인 심오함과 자연관을 바탕으로 한 ‘아재아재 바리아제’ 등 환경과 작품의 본질에 천착한 25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현대불교 전시회

동국대 불미研, 19~30일

‘제8회 현대불교미술전시회’가 19일부터 30일까지 동국대 학술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동국대 불교미술연구소(소장 문명대)가 주최하고 한국불교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아미타후불도를 비롯 관세음보살상, 부처님 세상, 꽃은 피고 물흐르다 등 총 22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 미술학부(주임교수 손연철)도 17일부터 23일까지 경인미술관에서 ‘제16회 졸업작품전’을 연다.

◇기사면처 ‘불심사심’ 읽는다.

범종교화합 ‘종교예술제’ 23일 열린다

예술을 통한 종교인들의 교류와 상호이해, 화합을 도모할 제1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가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예술의 전당(음악 미술) 호암아트홀(영화) 프레젠테이션(학술세미나) 등에서 개최된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7개 종교가 참여하는 이번 예술제는 각종교가 모두 참여하는 실질적인 운영위원회(위원장 원학 조계종 문화부장)가 구성돼 그동안 추진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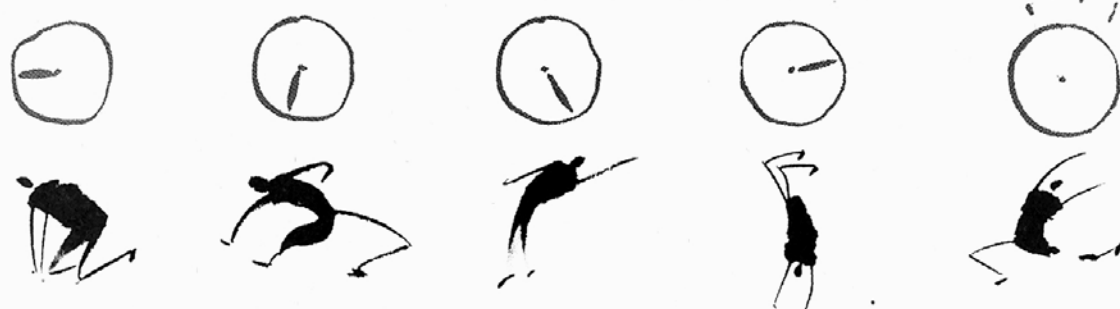
◇제1회 종교예술제 주요행사

종류	일시 및 장소	내용
음악제	9월23일 (19:00~20:30)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불교에서 ‘거룩한 손’ ‘미륵님 오시네’(김성녀), 개신교에서 ‘노래의 날개위에’(박미혜) 등 총 16곡 연주
미술제	9월23일~10월5일 예술의 전당 미술관	회화 61점 조각 13점 서예 11점 등 총 85점 전시. 송영방 오경환 류종민씨 등 참가.
영화제	9월29일~10월1일 (15:00~17:00/19:00~21:00) 호암아트홀	불교: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리틀부다-9월30일 개신교: 바베트의 만찬, 빛은 내 가슴에-9월29일 가톨릭: 희생, 로메로-10월1일
학술세미나	9월24일 (14:00~18:00) 프레젠테이션 기자회견장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우리의 과제(강영훈)’ 등 발표

종교예술제는 23일 오후 6시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개최되는 미술제 개막으로 시작되며 당일 오후 8시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1층에서는 개막 축하연이 열린다.

“살 빼야지, 살 빼야지.”

‘살 빼야지.’ 하는 조바심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가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500여년간 승가의 생활 속에 스며 있는 양생의 지혜. 군더더기 없는 삶, 군살 없는 몸매 유지의 비결 - 불교 다이어트.

저울의 눈금을 기준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실패, 아니면 부작용이 따르기 쉽다. 모든 것을 몸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스님들은 부처님의 계율을 따라 생활할 뿐, 특별한 방법으로 몸을 돌보지 않는다. 승가의 생활 그 자체가 건강의 비결인 까닭이다. 물론 대부분의 스님들은 몇십년 동안 1~2kg 정도의 차이로 몸무게를 유지하며 생활한다. 몸은 항상 변화한다. 그것이 늙음이고, 병듦이고, 죽음이다.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마음 바탕 위에서 불가의 생활을 몸소 실천해 보라. 몸과 마음이 동시에 다이어트될 것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책 ①

불교 다이어트 그까짓 살 좀 있으면 어때



국판 224쪽/ 학림 지음
여시아문 / 값 5,000원

- 제1장 승가의 생활
- 제2장 음식물로 다이어트를
- 제3장 쾌변으로 다이어트를
- 제4장 쾌면으로 다이어트를
- 제5장 호흡으로 다이어트를
- 제6장 식욕을 끊어 다이어트를
- 제7장 몸을 관찰하여 다이어트를
- 제8장 요가로 다이어트를
- 제9장 마음을 관찰하여 다이어트를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자동 110-33
전화: 737-0365(영업부), 737-0391(편집부), 737-0397(팩스)

